

### ■ 2005 년도 엔화 환율 전망과 대일수출에의 영향 분석

- 엔화환율과 관련하여 금년 2 월까지의 동향을 살펴보면 ①중국 위엔화 조기 절상 관측의 후퇴, ② 예산교서 발표 이후 미국 재정적자 축소 기대감, ③ 그린스펀 FRB 의장의 미 경상적자 확대 둔화 시사 등을 배경으로 달러 반발(달러高) 기조가 강해진 바 있음. 2 월 10 일에는 북한의 핵보유 선언 등이 겹치면서 한때 106.86 엔까지 엔低/달러高가 진행되었음.
-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수출기업에 의한 신년도 환예약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105 엔대 수준부터 실수요 베이스의 달러 매도 압력이 강해진데다 22 일의 북한의 6 자 회담 복귀 시사, 한국은행의 외환준비고 분산화 발표 등으로 한때 103 엔대 후반까지 달러약세/엔高가 진전되는 국면이 전개되었음.
- 미국의 쌍둥이 적자, 위엔화 평가절상 관측에의 관심이 급속하게 후퇴하는 가운데 美日 경기격차, 금리차 등을 배경으로 당분간은 달러가 견실한 시세권을 형성하는 국면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됨. 아울러 부시정권의 외환 스탠스가 종래의 달러약세 방치로부터 달러 안정을 지향하고 있는 점도 달러시세를 받쳐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단기적으로는 3 월 결산을 앞둔 자본의 국내회귀 움직임 등 계절적인 달러 高 억제요인이 개재하는 가운데 현행 100 엔대 중반수준에서 일진일퇴를 거듭하는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일본의 신회계년도가 시작되는 4 월 들어서는 ① 대외투자 활성화라는 계절적인 수급요인과 더불어, ② 미일금리차의 확대 가속, ③ 미국 경기회복에 따른 재정적자 축소 등으로 달러는 상승세가 강해질 것으로 전망됨.
- 당면 일본 국내 경기에 대해서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강해지고 있으나 제반 요인으로 인해 일단 회복세가 주춤해질 경우 일시적으로 달러高를 유발할 여지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음.
- 그러나 중기적인 엔低/달러高 진행 여지는 한정적일 것으로 전망됨. 배경으로서는 ① 미 경상적자는 기존의 달러 약세로 단기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은 있어도 근본적인 축소는 기대하기가 어려워 중기적인 달러매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 ② 美-中 무역불균형을 배경으로 하는 위엔화절상 관측은 향후로도 단속적으로 아시아통화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 이상과 같은 잠재적인 달러 매도, 엔 매입 가능성이 잔존하고 있는 가운데 IT 관련 재고조정의 일순(一巡) 등으로 일본 국내경기의 회복세가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이는 금년도 중반 이후는 재차 엔高압력이 강해질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한편 對日 수출측면에 보면 엔화환율(對달러)과 더불어 원화환율(對엔화)의 동향도 주시할 필요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금년 중에는 엔화환율이 이상과 같은 전망치 범위에서 추이하고 원/엔화 환율도 현행대비 대폭 변동하지 않는 한(현행 환율은

100 엔당 950 원 전후임) 우리나라의 對日 수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주요 수출기업들은 엔화 베이스 대금 결제비중을 높여오고 있고 일본기업들도 환리스크 회피차원에서 非달러권 지역에 대해서는 엔화결제를 늘려오고 있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권과의 교역시 엔화 결제비중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 아국주재상사 현지법인들의 경우 석유화학, 선박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면 대략 70%의 주재상사들은 對日 수출시 엔화 결제를 하고 있고 오히려 현재와 같은 엔高 기조하에서는 달러표시환산액의 增價를 가져오는 측면도 있어 원/엔화환율이 지난해 말의 100 엔당 1,000 원 수준에서 950 원 수준으로 하락한 올 3 월 시점에서도 마이너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참고로 우리나라의 對日 수출은 2004 년에 전년대비 25.6%가 증가하였고, 올해에도 두 자리수의 신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전자부품의 경우 공급 과잉, 가격하락, 재고누적 등으로 지난해 하반기 이후 수출이 둔화세를 보여오고 있으나, 올 중반 이후로는 재고조정 진전 등으로 상황이 회복될 것으로 보여 대일 수출에 마이너스요인으로 작용할 소지는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됨.

**< 민간 싱크탱크의 2005 년도 엔화환율 전망 >**

기관명	2005 년도 엔화환율전망치 (달러당)	비고
정 부	104.9 엔	*정부경제운용 참고치
일본종합연구소	107-108 엔	연구소 자체 전망치
도쿄미즈비시종합연구소	110 엔	상동
상공중금연구소	105 엔	상동
UFJ 종합연구소	107 엔	상동
다이와종합연구소	101.5 엔	상동

(자료원 : 각 연구소의 전망치 자료 종합, 2005 년 3 월 현재시점 기준)

\* 주 : 정부 전망치는 공식 발표하지 않고 있음

(작성자 : 도쿄무역관 신태철 [stc69@kotra.or.kr](mailto:stc69@kotra.or.kr))